



GE, 한전과 국내 최초로 빛가람 에너지 밸리 내 HVDC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2017년 3월 13일, 서울 - GE는 한전과 3월 13일(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HVDC(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에서는 조환익 사장과 문봉수 전력계통본부장이 참석하고, 제프 이멜트(Jeff Immelt) GE 회장과 강성욱 GE 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수전점에서 교류전력으로 다시 변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뜻하며, 초고압 대용량 송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직류중심의 전력시스템은 교류전력에 비해 장거리 송전시 전력손실이 적고, 유도장애가 적은 장점이 있어 전력설비 건설의 경제성과 수용성이 높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HVDC 시장이 현재 약 60억 달러, 2026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기술의 HVDC 기자재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과 정보를 융합하는 디지털그리드(Digital Grid)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HVDC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GE는 HVDC 사업협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3월중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관련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글로벌 기업 GE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공동투자를 통해 전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번 투자가 국내 HVDC 사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에너지밸리가 세계적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향후 GE가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과 함께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E 코리아 강성욱 사장은 “전력산업의 디지털화는 HVDC,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앞으로의 미래 전력분야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GE의 에너지 및 전력분야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사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HVDC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HVDC 관련 국내외 대·중소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확대 등 에너지밸리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 HVDC 분야중심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